

# 가에타노 페세의 작품세계 : 물성의 심연을 찾기 위한 초현실적 상상력

A Study on Gaetano Pesce's Work : The Surrealistic Imagination searching for the abyss of materiality

조현신

동서대학교

Jo, Hyun Shin

Dongseo University

Key Words : Surrealistic Imagination, Materiality, Reversed Objects, Moment of Mistake

## I. 서론

비평가는 자신의 내재화 된 체험을 해석하여 또 다른 언어로 자신의 공감과 이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물론 독자는 비평가의 해독을 공유하거나 거부하면서 작품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창조 된다. 하지만 이 새로이 창조된 의미는 작품의 본질에 대한 각각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 작가의 세계는 여전히 해독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진다. 마치 우리가 모든 물질을 바라보나, 그 심연에는 도달하지 못하듯이. 본 논문은 이태리 디자이너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의 작품 세계를 초현실적 상상력의 표출이라는 전제하에 물성의 심연 탐구, 전이와 결합의 오브제, 우연과 순간의 포착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트의 세계가 제공하는 사이버 이미지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부침하는 표면의 세계이다. 이에 비해 물질은 인간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그 두께와 이면 뒤에 심연을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다. 본 연구는 가에타노의 작품이 지닌 물성(物性)에 초점을 맞춘 면에서 상실되어가는 물의 세계와 형상에 잠재한 고유의 근원성을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 II. 가에타노 페세와 그의 작품

가에타노 페세는 1939년 이태리의 라 스페지아(La Spezia)에서 출생하여 현재 뉴욕, 베니스, 파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18세에 최초 개인전을 개최한 그는 청소년기에 초현실주의적 기법에 많은 흥미를 느낀다. 특히 마르셀 뒤샹과 달리에게 많이 경도되었던 그의 이력은 후에 일련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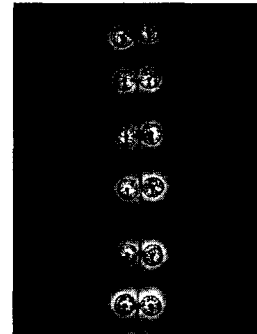
이후 베니스 건축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경직된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그룹 활동과 시네틱 아트, 프로그래밍 아트, 무대 설계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64년 가구회사 사장인 세자르 카시나(Cesare Cassina)를 만나 그의 후원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는다. 또한 1960년대 그가 만난 플라스틱은 그의 표현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가 카시나사를 위해 70년대와 80년의 가구는 가장 표현주의적이고 비 윌적으로 보이는 가구가 어떻게 산업사회와 만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꼽힌다. 현재 가구, 조명, 유리작품을 비롯하여 호텔, 환경 디자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1. 물성의 심연에 대한 탐구

물질의 심연을 탐구하기 위한 초현실적 상상력이란 물질의 내면에 잠재한 고유한 성격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질의 속성이나 형태의 일반적인 특질을 변형하고자 하는 욕망을 낳는다. 이는 동사적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현상의 배후에 숨은 가능성은 “본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태로 되어가는가, 혹은 그것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순간 어떤 상태로 변형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작용이다. 이는 물성의 본성, 심층, 혹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부정의 독서 방법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것은 비트의 세계가 지향하는 이미지의 세계, 표면 만의 착색을 거부하며 세계를 물들이고자 하는 “염색의 방법”<sup>1)</sup>이다



Pratt chair series, 1984



Bastone lamp, 1986

프렛타(Pratt) 의자는 앉는다는 의미에서 물건의 기능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웅암이 암반을 적시며 흐르는 듯한 색채와 부정형의 형상, 다듬어지지 않은 플라스틱의 왜곡된 듯한 촉감은 기능의 만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존재성에 소구하면서 의자라는 물건이 인간의 존재성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듯이 보인다. 이 의자는 형상화 될 수 없는 존재성의 형상화이다. 이것이 물질이 지닌 색채와 촉감형태의 환기를 통해서 이룩되므로 페세의 상상력은 물성 자체에서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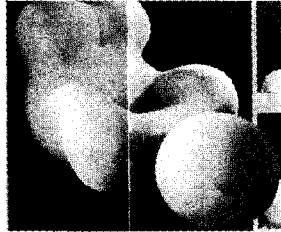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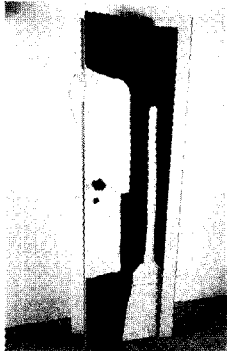
이에 비해 바스톤 램프는 좀 더 단순한 사물의 속성을 환기시킨다. 열매나 새싹의 이미지가기도 하고, 양서류의 알, 혹은 식물의 유기적인 형태가 램프의 빛과 결합되어 페세의 작품에서는 드물게 보여지는 발랄성을 표현한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의 사물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형상을 포착할 때만이 가능하며, “형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sup>2)</sup> 만이 가능한 형상이다. 페세가 이러한 형태를 통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은 겉걸의 방향성을 지닌 형태들의 본질이다.

1) 가스통 바슐라르,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문학동네, 2002 p.50,

2) 스기우라 고헤이, 『형태의 탄생』, 안그라픽스, 2001, p.005

## 2. 전이와 결합의 오브제

사물이 지닌 이미지의 전이는 낯익은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 물체가 지닌 다른 측면의 언어를 발화한다. 이는 작가의 원초적 내밀성을 응시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탄생된다.



La Mamma,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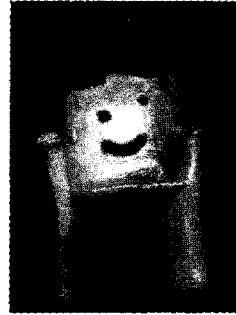
Porte de la Maison Hubin, 1986

위의 <우방씨 집의 현관>과 같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소멸되어 등치 된 오브제는 미분화의 통합적 세계를 지향하기에 우리에게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심상을 환기시킨다. 이 때 각각의 오브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충분히 주장한다. 문 옆의 색칠된 빗자루, 코트에 달린 까만 꽃은 등가의 지위를 주장하기에 일상의 이미지에 익숙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병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의 본연의 모습이다. 사물의 체계에 길들여지지 않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한 화면 안에 재구성됨으로써, 이들은 기호로서의 사물의 속성을 벗어나 존재로서의 사물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다. 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경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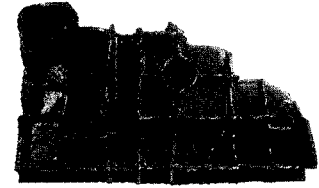
작품 <마미>는 엄마의 본질을 말한다. 편안한 엄마의 품이 난자, 혹은 우주나 태양을 상징하는 구와 만나면서 결합을 보여주되 그 크기의 전도와 배분은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는 엄마의 절대적 가치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가를 보여준다. 이는 표면을 겹겹이 둘러싼 형태를 거부하고 내면의 절대적 가치를 보고자 할 때 찾아오는 상상력이다.

## 3. 우연성과 실수의 표현 = 순간성의 포착

실수는 순전한 우연이며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다시 잡기 힘든 일회성의 성격이므로 오히려 그 가치를 갖는다. 페세는 현대 건축과 디자인이 지닌 극한적인 추상성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싶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추상성의 가장 반대 에 대치되는 것은 실수와 우연이다. 추상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실의 리얼리티만이 실수를 보여주기에 페세의 작품은 초현실적이되 가장 현실적인 발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이어리> 의자는 미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 형상의 부정형으로 인해 그 미소는 어쩌다 한 번 스쳐간 순간임을 환기시킨다.



Dalila Chair, 1980



Carenza bookshelf, 1972

한 물체에 머물러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각인되었다기 보다는 흐르는 듯한 물성의 도움으로 다른 표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여백과 가능성의 말을 건넨다. 이러한 면에서 페세의 작품은 순간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주제와 객체를 함께 섞는 작용을 한다. <카렌자 책 꽃이>는 폴리우레탄의 작업 과정에서 공기 구멍을 내지 않고 만든 작품이다. 그는 직공들이 실수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실수라는 개념이 정형화된 틀, 미적 감각의 주변임을 거부하고 그것 자체가 존재성을 획득하기를 주장한다. "인간은 실수투성이다. 나에게 있어 실수한 것을 작품의 질로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sup>3)</sup>

## III. 결 론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다. 케세가 추구한 사물의 표현능력은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심층의 것들을 형상화를 통해서만 가능케 한 세계를 아득했다는 면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단지 개인의 개성이나 색다름이 아닌 물성이나 형태의 심연에 자리 잡은 근원성을 표현하려 한 점에서 보편적인 언어의 차원으로 변환된다. 상상력은 조성된 주제라는 측면에서 그의 초현실적 상상력은 내면의 본질을 물성을 통해 통합하고, 사물의 본질에 닿고자 하는 가장 강렬한 실제적 소망이다.

## 참고문헌

1. Marisa Bartolucci 『Gaetano Pesce』, chronicle books, 2003
2. France Vanlaethem, 『Gaetano Pesce: Architecture, Design and Art』, Thames and Hudson, 1989
3. 국립현대 미술관, Less and More전 도록, 2002
4. 정귀영, 『초현실주의』, 의식, 1991
5. 정귀영, 『초현실주의 시비학』, 의식, 1987
6. 가스통 바슐라르, 『대지 그리고 휴식의 상상』, 문학동네, 2002
7. 스기우라 고헤이, 『형태의 탄생』, 안그라픽스, 2001

3) Marisa Bartolucci 『Gaetano Pesce』, chronicle books, 200p.51